장일범의 '극장 없이는 못살아'

김선욱이 지휘하고 조성진이 협연하고

지난 14일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당에서는 공연기획사 빈체로의 창사 3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렸다. 이 공연이 특별했던 이유는 작은 공연기획사로 출발해 지금은 세계의 내로라하는 오케스트라와 공연 단체를 한국에 유치하며 한국의 일등 공연기획사로 올라선 빈체로의 발자취를 돌아 볼 수 있었던 공연이라는 점이었다.

또 그간 빈체로의 전속 아티스트로 공연을 이어온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김선욱이 1부에서 함께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협주곡'을 현연하고, 2부에서는 역시 김선욱의 지휘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하는 굵직한 무대가 이어진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공연에 앞서 김선욱이 이끄는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조성진은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경기아트센터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올라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을 연주하며 합을 맞췄었다.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7대 상임지휘자인 김선욱과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협연은 한국 클래식 음악사에 길이 남을 최초의 공연이었기 때문에 공연 전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김선욱은 1988년생 37세, 조성진은 1994년생 31세의 6살 터울로 오랜 시간 형, 동생하며 친분을 이어온 사이다.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두 젊은 음악가들이 한국에서 함께 음악을 만들어간 무대는 음악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선욱은 2006년 영국 리즈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조성진, 임윤찬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젊은 피아니스트의 계보의 맏형이자 첫 주자가 되었다. 김선욱은 베를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진은숙 작곡가의 '피아노 협주곡'(2011),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2025)을 협연할 정도로 성장했고 지휘자로서는 일약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발탁돼 활동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간 경기필을 맡아온 그는 이번 공연을 끝으로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그만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많은 사람들을 깜짝놀라게 했다.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더 도약해야할 그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14일 예술의전당 무대에서 펼쳐진 조성진의 차이콥스키 '피아노협주곡 1번' 무대는 인상적이었다. 이 곡은 조성진이 지난 2007년 열린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4위를 차지할 당시 알렉산드르 드미트리예프 지휘로 연주했던 작품으로 조성진의 확고한 협연 레퍼토리중 하나다. 곡 초반부터 조성진은 무대를 압도했고 피아노의 음량도 컸다. 날아다닌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자유자재로 마음껏 표현하며 연주를 해낸 조성진은 비르투오조적인 빼어난 테크닉을 구사, 혀를 내두르게 했다.

조성진의 연주가 끝난 뒤 두 사람이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아 함께 연주한 앙코르곡 브람스 '헝가리언 댄스 5번'는 청중들에게 흐뭇한 큰 선물이 되어주었다.

기대를 많이 했던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연주에서 선배인 지휘자 김선욱과 후배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만남은 훈훈하고 아름다웠다. 한국 음악계를 상징하는 30대 후반의 지휘자 김선욱과 30대 초반의 협연자 조성진이 이렇게 멋진 무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한국음악계가 또 한번 새로운 챕터를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평론가〉

의료칼럼

태교와 태명

김 윤 하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부는 모든 면에서 조심하게 된다. 특히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는 바로 태교 때문이다. 예비 엄마라면 누구나 몸과 마음이 튼튼한 아기, 재능이 발달한 아기가 태어나기를 원하며 이런 소망은 태교로 이어진다.

태교는 임신부의 행동이 태아에게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근거로 임신 중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언행을 삼가며 태아가 자라나기 위한 준비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임신 중 교육을 말한다. 한때 비과학적인 미신이라고 치부됐으나 자궁 내 환경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에 의해 그 영향력이 증명되고 있다.

태아는 3개월이면 청각기관이 발달하고 5개월이 되면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아이를 위한 애칭을 만들어 부드럽고 분명한 목소리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다양한 느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태담 태교는 아이에게 좋은 자극과 정서적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임신부와 태아의 정서적 유대를 깊게 한다.

또한 음악 태교를 통해 태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우뇌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바느질 태교를 통해 태아 두뇌 발달을 도운다고 한다. 그 외 음식태교, 태교운동, 태교여행 등이 권장되고 있다.

부부가 상의해 어떤 방법의 태교를 할지 결정하되 태아에게 다양한 학습 효과를 주기 위해 태교법은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어느 시기에 어떤 태교를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등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한다. 하지만 무작정 태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이가 천재이거나 풍부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태교는 아기에 대한 사랑을 기본으로 임신부가 즐겁게 행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가 임신을 확인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될까? 모르긴 몰라도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태아가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10개월, 혹은 그 이상 부르게 될 태명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태명, 우리나라 옛 이름으로는 '배냇이름'이라고 한다. 태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태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보고 듣고 배운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아챈 선조들은 엄마 뱃속에서의 열 달을 한 살로 인정하고, 태명을 붙여 이름을 부르고 대화하고 교감하며 태아와의 애착 육아를 시작했다.

한 육아 방송 프로그램에서 축구선수 이동국의 아들인 대박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이시안'이라는 이름보다 대박이라는 태명으로 더 많이 불린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예쁜 태명을 짓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태명을 짓는 것에는 특별한 법칙이나 규칙은 없다. 부부 만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사랑을 담아 부르면 그만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아기의 건강, 지혜로움을 기원해서일까 비슷한 태명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태아의 건강을 바라는 의미의 튼튼이, 힘찬이, 쭉쭉이, 씩씩이, 쑥쑥이 등의 태명도 있고,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는 의미의 대박이, 복덩이, 럭키, 로또, 다복이, 복땡이, 축복이 등의 태명도 있다. 이 외에도 작은 모양을 의미하는 콩알이, 꼬물이 등의 태명도 선호되며, 지난 2018년의 경우 황금개띠이다 보니 개똥이, 금동이, 황금이, 금몽이와 같이 띠를 따라 짓기도 한다.

태아는 임신 20주가 되면 엄마의 목소리를 감지하기 시작하고 이후로 뱃속으로 전달되는 부모의 목소리를 기억하기 시작한다. 단순히 '아가'라는 호칭보다 애정이 담긴 태명을 통해 태아와 교감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최고의 태교가 아닐까 생각한다.

기 고

'에너지수도 나주' 자리매김은 규제 혁신부터

김 강 정
나주시의원

나주시가 1조 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시금석을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나주시 행정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라는 엄청난 기회가 찻잔 속 태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에너지 전환 역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에게 직접 당부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반도체 산업을 남부로 이전해 분산시키자는 제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산업 인프라가 공존하는 남부권, 예컨대 나주를 포함한 전남권이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 반도체뿐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읽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주는 단순한 정책 참여를 넘어 국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서 미래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다.

특히 최근 전남 전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고 더 나아가 국가 미래 에너지 기술의 핵심인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최종 부지가 나주로 확정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나주가 명실상부한 에너지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이며 앞으로 10년을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들이 에너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나주가 보유한 광활한 부지, 전국 최고 수준의 일조량, 세계 유일의 에너지 전문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와 유수한 에너지 공기업 등 훌륭한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 중복된 인허가 절차, 여러 부서가 따로 규제를 적용하는 구조, 경직된 개발 기준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업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투자를 위해 다방면으로 방안을 찾던 덴마크 최첨단 바이오에너지 설비 기업이 나주 투자를 검토했으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다층적인 환경 규제로 인해 결국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방향을 틀었던 뼈아픈 실패도 있었다. 단 하나의 규제 장벽이 나주시가 가져갈 수 있었던 일자리, 기술 이전, 세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모두 잃게 만든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연구와 창업을 가로막지 않는 규제 혁파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주도 이러한 혁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규제와 투자환경이 동시에 혁신될 때 비로소 진정한 에너지 수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나주 유치가 확정된 인공태양 연구 인프라는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며 그 경제적·기술적 파급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실증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산업·환경·입지 규제를 정비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 전남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따라 나주가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하려면 규제자유특구 수준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전력계통 실증, 에너지저장장치, 지역 기반 전력거래 등 미래 기술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특례가 적용돼야 특구 지정의 실질적 의미가 살아난다.

나주가 에너지 수도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과감한 규제 혁신을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비합리적 규제는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예측 가능한 인허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핵융합 연구시설과 분산에너지 특구라는 기회를 발판 삼아 나주가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에너지 산업의 규제프리 기반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지금의 결단이 나주의 10년,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50년을 좌우할 것이다.

社 說

합의 도출 광주공항 이전 후속조치도 신속히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2007년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 18년 만이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역 갈등을 유발한 대표 현안이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대통령실·국방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참여해 광주시·전남도·무안군과 6자 협의체를 구성해 결실을 맺게 됐다. 6개 항의 합의문에는 무안군에 1조원을 지원하고 첨단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과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점 등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사업이라는 것을 명기한 점인데 "국가 균형발전에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발표문 문구에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무안군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 확약을 요청해 왔는데 합의문에서 정부 의지를 확인한 만큼 주민투표라는 관문은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개입으로 쾌도난마식 해법을 찾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 지원만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기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기부 대 양여 방식도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이전사업비는 현재 5조 7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땅값 상승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최대 10조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주 군·민간공항인 종전 부지 개발도 관건이다. 상무지구의 2.5배이자 여의도 면적의 6배 규모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광주 경제 생태계를 뒤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공항 이전 해법 도출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최대 성과로 꼽을 만 하다. 그런 만큼 지역민들의 환영과 호응도 높다. 따라서 남은 과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길 바란다. 합의문에 담긴 것처럼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여기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한다.

대통령 공약 '신안 햇빛연금' 전국 모델 된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신안군의 햇빛 연금을 전국으로 확산하라고 주문했다.

공유자산인 햇빛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소멸위험지역이 인구가 모여드는 곳으로 탈바꿈 시킨 성공 사례로 신안군을 꼽은 것이다.

신안군은 2018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재생에너지 발전 법인 지분의 30% 이상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할당에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270만원을 지급하는데 수혜자는 군민의 63%인 2만 4000여명이다. 햇빛아동연금과 햇빛장학적금 수혜자까지 포함하면 군민 대다수가 재생에너지 수익을 나눠 갖고 있다.

2023년부터는 인구 증가로 이어져 전국에서 가장 소멸 위험이 컸던 신안군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정도로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다.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전국 확산을 주문한 것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절실한 마당에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수익도 나눠 가질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도 국비 550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햇빛소득마을을 매년 500곳씩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런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조그만 지자체의 정책이 어떻게 주민들의 삶을 살찌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광주시의 통합돌봄도 내년부터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전국에서 시행되는데 이런 성공 사례가 지역에서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無 等 鼓

'책 사줄게'

오래 전 단골 커피숍에는 쿠폰 나눔 나무가 있었다. 손님이 커피 한 두잔 값을 건네주면 쿠폰을 만들어 나무에 걸어두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다. 주인장은 고객들에게 청소부 아저씨, 택배 아저씨, 동네 아이들이 음료를 마시고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손님들은 쑥스러우면서도 조금은 착한 일을 한듯해 기분이 좋아졌다. 그 가게는 사라졌지만 한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쿠폰을 나누는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기억이 있다.

최근 '책 사줄게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었다. 어른들이 미리 결제를 하면 청소년들이 책을 골라가는 기획이다. 시작은 충북 청주의 '책방, 앤'이었다. 서점지기는 아이들에게 책 고르는 즐거움을 전해주고 싶었고, 그의 소망은 한 달에 책 몇 권 값을 후원하겠다는 단골의 제안으로 현실이 됐다. "어른들이 선결제 했단다. 책 받아가렴, 들어와서 고르기만 해." 지난 2월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며 후원자가 늘었고 청소년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14~19세 청소년이 부모 없이 혼자 와서 책을 고르는 조건이었다.

'책 나눌게'는 전국 책방지기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갔다. 여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한 화순 '책방오다'의 강윤성 대표도 그중 한 명이다. 익명 후원자들까지 동참하며 기금이 150만 원을 넘어섰고 초등생부터 고교생까지 마음에 드는 책을 가져갔다. 여수의 '거기 책방 다섯'도 12월부터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서점들은 '책 사줄게 책 나눌게'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어른들이 선결제를 했고 청소년들은 동명서점, 소년의서, 예지책방, 러브앤프리, 서로사랑하세요, 완벽한오늘, 책과생활에서 책을 받아갈 수 있다. 동명책방을 찾은 여고생들은 김주혜의 '작은 땅의 야수들', 부커상 수상작인 서맨사 하비의 '궤도'를 구입해갔다고 한다.

마침 선물하기 좋은 연말연시다. 동네 책방에 책값을 두고 오는 건 어떨까. 아이들이 책과 친구가 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책방에 들러 아이가 직접 골라 읽은 바로 '그 책'이 앞길을 밝히는 '인생책'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6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